

## 〈서론〉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기 백성의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절대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해방하신 이름이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해방이 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회개 중의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어요, 이걸 초등학생 수준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회개 중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비밀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비밀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 〈본론〉

### 1.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4:1)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지금은 구원의 날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잡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여 못 들어갈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면역력을 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속고 넘어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0년을 같이 했더라도,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못 들어갈 자도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히4:2)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잘 잡아야 합니다. 237과 5000종족을 위해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히4:3상)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인도받는 자들은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과정입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히4:3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갈 자는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영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과정이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렸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4:4-6)

결국 복음을 전했는데 왜 못들어가는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확정된 사람입니다.

### 2.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히4:7)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나 중심과 세상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서 그 말씀이 다윗까지 왔는데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히4:8)

광야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4:9)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4:10)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과 같은 안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4:11)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본이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언약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본으로 삼습니까? 그 본을 보고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 3.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좌우로 휘둘러 수 있습니다. 칼은 한쪽으로만 휘둘러 수 있지만 검은 어디로나 휘둘러 수 있습니다.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합니다. 영혼과 육신까지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를 말합니다. 말씀이 영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다면 이 말씀을 붙잡는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가 아픈데 말씀으로 이 머리를 쪼개서 나를 수술하고 치유해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

분 금요기도회는 정말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영과 맘과 육신과 정신을 찢어 찢개서 나를 치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칠일 켜에 쉬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 나느니라(히4:13)**

말씀 앞에 인간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 이 빛으로 내게 비추어질 때는 나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 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4:14)**

오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내 죄와 더러운 것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주신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오직의 답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아야 할 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도를 붙잡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는 본질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저와 여러분은 큰 대제사장인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큰 대제사장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 〈결론〉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전도, 내가 하루에 한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조건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